

미군의 종교 환경 '군법사'가 지킨다

해외불교칼럼

"사람이 무너지게 하소서!"라 울부짖는 영상 등이 지구촌을 누비며 우리 모두 애써 일군 '신진한국'을 순식간에 미개인의 땅으로 되돌려 놨다. 그러더니 이번엔 서구인들조차 수치의 역사를 여겨 감추고픈 '십자군전쟁'마저 들먹이는 시대착오적 광신우종들이 마치 '종교내란'이라도 벌리지는 않 거품을 묻는다. 종교인의 말을 쓴 일부 '영혼장사치'들의 저열한 수작에 알게 모르게 끌려 다니는 어질고 착한 분들이 그저 안스럽고 답답하던 얼마 전 가슴이 좁 트이는 소식이 접했다.

미 합중국군 최초로 종교법사에 임관된 해군중위인 지네트 그레이시 신 비구니스 님이 쓴 글로서 8월 1일자 미국의 <군 불자승가, Buddhist Military Sangha>에 게재됐다. 이 글을 통해 미국 등 선진국에선 모든 종교들을 어찌 대하는지, 또 신앙의 자유는 어떻게 제도적 보장을 받는지 이 땅의 일부 야만 중생들이 부디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미국인임을 예정하는 불자님과 현지교포 청소년불자들의 진로설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다음은 '미합중국군의 불교 군법사 지원자격(Requirements to Become a Buddhist Chaplain in the US Armed Forces)'이란 제목의 글이다.

수계한 불자가 군법사를 지원하는 경



최초의 미 국방성 법사인 지네트 그레이시 신 해군중위의 복무서약 서명식. 해군중위장 루이스 라세일로 소장(왼쪽)과 해군예비함대 사령관 존 카튼 중장(오른쪽)의 입회, 2004년 7월 22일 미 국방성 펜타곤.

우, 불교화 관련 학위가 최우선 선발조건이다. 학사 및 석사학위는 미 합중국군 전체 군종부원의 필수자격요건이다. 법사 지원자는 개별선택에 따라 공인된 종단에서 수계, 정식승려자격을 지녀야 한다. 미 합중국군대나 미국불교단(BCA)은 계를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수계는 각자 선택사항이며 2년 이상의 수행경력이자 최우선 선발대상이다. '미국불교단'은 중증이 발급하는 DD2088 서식에 의거, 군법사의 신분을 보증하는 단일 기구다. 동 발급은 정통 불교교단에서의 수계 및 수행경력 입증, 일반학력 검증 및 구두면접으로 결정한다.

육해공군 공히 장교의 제한연령은 임관 당시 사십대 초반이나, 법사의 경우는 모병관의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다. 지원자는 심리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고 임관 이후에도 매년 구보, 팔굽혀펴기 등 체력검증을 필해야 한다. 또한 해외주둔, 합상군 무 등 특수 다양한 복무여건에 적응할 심리 및 신체 상태를 입증해야 한다. 전체 군종부원은 국방성의 '종교조정환경지원'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조정환경지원이란 군종부원이 범종교적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종교간 차별 및 개종의 시도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특히, 군법사의 경우, '근무할 수 있다' 함은 불교를 비롯한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등의 장사병에 적시 적절한 상담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뜻한다. 미군 내에는 기독교도 이외의 상당수의 위카 신봉자(Wiccan, 주: 유럽의 기독교 이전의 종교)를 포함, 현재 영어문화권을 중심으로 급속 확산되는 신종종교 또는 종교운동 등이 있다. 이들을 포함한 타종교인의 경우, 불교전통과 군법사의 개인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군법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체 장사병에 자유로운 신앙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군법사도 타종교에 다른 견해는 지닐 수 있으나 장사병의 개종을 시도할 수 없다. 군종부원은 군대내의 종교상호적 활동이다. 여기서 군대환경이란 군내 문화와 전우에 등을 뜻한다.

군법사는 미합중국군의 장교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상기요건은 미국 국방성의 규정이다. 따라서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전체 군종부원 지원자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 요건에 부합되고 군종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육해공군의 각 사이트를 통해 모병관에 문의한다. 여기까지가 일부 내용이며 현재도 미국방성은 군법사들을 후속교육 배치 중이다. 그런데 미국은 왜 불교, 이슬람, 유대교까지 군대 안으로 불러들이는 걸까? 설마 미합중국 군대가 예수천당에서 불신지옥으로 바뀌는 건 아닐 터, 이렇다 자칫 이 땅의 광신파거리들이 주한미군부대 앞으로 몰려가 '사탄아, 물러가라!' 울부짖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그나마 단아하고 여법하신 미군법사님들을 우리나라에서 뵈는 날이 머잖은 듯하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Navy.MIL, ABN

지네트 그레이시 신은?

미 해병대 4년 복무(1988~1992) 후 명예제대,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철학 및 종교 학사 취득, 버클리의 GTU에서 불교학으로 석사 취득, 2003년 일본 교토의 본원사에서 수계, 2004년 7월 군법사 임관 후 현역복무 및 국제사이버전법 활동 중.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앨리스 워커

'중도'는 흑인 인권운동의 힘

소설 <컬러 퍼플>을 비롯해서, 수필 등에 걸쳐 다양한 문학적 천재성을 발휘하는 앨리스 워커 보살이 언제부터부터 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가르침을 새로 일깨우며 정의와 화해의 새 질서를 되살리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영광스럽게도 틱낫한 스님을 벗이라 부릅니다. 그는 겸허하고 독실한 믿음을 지닌 성자로서 방대하고 심오한 학술적 재능을 지녔습니다. 여



마틴 루터 킹 목사.

마틴 루터 킹, 틱낫한 노벨상 후보 추천

'평화 비폭력 실천은 인간애의 기념비'

은 무자비한 핍박이 흑인들에게 가해지던 시절을 보냈다. 그녀의 말을 통해 미국흑인들에게 불교가 끼친 영향에 대해 가능해 보기로 하자.

"민권운동 당시 제가 어느 흑인들과 이야기를 나눠 봐도 예외 없이 일치된 견해가 하나 있었어요. 즉, 흑인교회에서 지닌 일족축발의 불파력, 그리고 극단적 행동을 피하며 중도를 걷는 불교의 내재된 힘, 그 두 가지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불교사상에서 비폭력운동의 개념을 수용한 사실, 또 그분이 살해되기 바로 전 해에 베트남의 틱낫한 스님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단순한 우연 일까요?"

그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7년 1월 25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노벨평화상 위원회에 보낸 서신을 한번 읽어보자.

"저는 1964년 노벨평화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로서 1967년도 동 평화상의 수상자로 틱낫한이란 이름을 기쁘게 제안합니다. 저는 베트남 출신의 이 스님보다 더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을 지닌 분을 알지 못합니다. 평화와 비폭력의 길잡이이신 이 분은 전 세계의 안전과 바른 삶을 해치는 전쟁에 시달리는 동포들로부터 가혹하게 격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벨평화상을 틱낫한 스님께 수여하는 사실 자체가 가장 너그러운 평화의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또한

러 서적을 저술하고 지순하고 인간애가 충만한 시를 쓰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분은 사이공에 '반 하느' 불교대학의 설립을 돕고 종교철학교수로 후학을 지도하며 사회학연구소를 이끄셨습니다. 또한 유수 불교간지인 '티엔 미'의 편집장을 지내며 베트남청소년의 재활훈련 기구인 '청년사회봉사단'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정부로부터 입국금지조치를 당한 그가 만일 본인의 소원대로 귀국을 하면 극도의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베트남인들에게 평화를 옹호하자고 제안한 그는 가혹한 망명의 희생자입니다. 외국세력과 타락한 부유층의 착취로 점철된 베트남의 역사는 지금도 암재와 궁핍과 더불어 현대전의 공포와 고통으로 이어져 옵니다. 지금도 그는 세계 각국의 정치, 종교 지도자, 지식인들에게 이 악몽을 벗어날 자신의 방안을 제시하고 그분들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화안이 적용된다면 이는 범종교 파주의, 지구촌 형제애, 인간애를 이뤄 낼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귀 위원회가 1967년 노벨평화상의 영광으로 그의 바른 이념을 북돋아 주시길 바라며 삼가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런 글은 아무나 쓸 수 없다. 참된 신앙의 맛을 지니고 복된 삶을 살고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세심 돌보이는 데없이 아름다운 편지다.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Which box do you want?

어느 상자를 고를 테야?



A Christian missionary (pastor) brings two boxes before little kids. He says one belongs to Jesus and the other to Buddha. And they are asked to select any box of their choice. The Buddhist kids select the box of Buddha. But they found it empty. Now he tells them to select the box of Jesus. It is filled with so many things. Then the pastor smiles very kindly, "See how Jesus loves you!" This is a true story, 'Which box do you want?' revealed over 'unethical conversions' by a renowned broadcaster Eric Fernando, A.C.M.A. at a 3-hour TV programme of TNL, Sri Lanka.

한 기독교 선교목사가 꼬마들 앞에 두 개

의 상자를 갖다 놓고서 그 중 하나는 예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붓다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곤 갖고 싶은 걸 고르라 하자 불자인 꼬마들은 당연히 붓다라 표시된 상자를 골랐다. 그런데 그 속은 텅 비어있었다. 이제 그는 그 애들에게 예수라 표시된 상자를 고르라고 말했다. 그 속엔 여러 가지 물건이 잔뜩 들어있었다. 그가 한껏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는지?" '어느 상자를 고를 테야?'란 제목의 이 얘기는 '비윤리적 개종'에 관한 스리랑카 TNL 텔레비전의 3시간 집중토론 중 저명방송인 에릭 페르난도씨가 밝힌 실화다.

번역: 성휴 스님 그림: 이태수

유태계 불자 대열에 합류 사라 제시카 파커, 불서 탐독

8월 19일자 피알 인사이드 지는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스타 사라 제시카 파커가 주부(Jew-Bul), 즉 유태계 불자의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 보도했다. 최근 현재 2개의 케이블 쇼의 제작과 결혼생활의 난조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그녀는 아일랜드의 가족 별장에서 유명 불자이자 학자인 실비아 부어 스타인 보살이 저술한 불교 입문서 겸 스테디셀러 <어머, 당신이 불자세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잔 브레이엄 스님의 <이 한 트럭의 풍을 누가 주운했을까?>, 불교저서 베스트셀러 작가 수리아 다스 스님의 <지혜의 말씀> 등에 심취하며 심적 안정을 되찾고 있다. 할리우드의 주부로 팔디훈, 케이트 허드슨, 기네스 펠트로우, 우피 골드버그 등이 있다. 출처: BCT, PR Inside

원순 스님 '열강' 동영상으로

원각경 특강 CD 제작 100부 한정 보급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3주년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공부를 돕고자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CD'를 제작 100부 한정 보급합니다.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 문하로 출가해 제방 선원에서 수선(修禪)하고 제경전(諸經典)을 연찬한 원순 스님이 조계종 동화사 기본 선원에서 10일간 강의 한 내용을 그대로 생생한 동영상 CD에 담았습니다. 문수 보현 미륵 보살 등 12보살이 열여 주는 진리의 세계, 그 환한 세상으로 가는 길, 동영상 CD로 만나는 원순 스님의 '열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목: 원순 스님의 <원각경> 특강
- 분량: 총 10강 동영상 CD 20매
- 강의: 2007년 9월 16 ~ 27일 (10일)
- 장소: 조계종 동화사 기본선원
- 제작: 현대불교영상사업단
- 가격: 19만원(교재 포함)
- 교재: 함허등등 주해 원순 스님 풀이 <한글원각경> (법공양 권, 2만 5000원)
- 구입문의: 02)2004-8279, 8200
- 입금계좌: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경전강좌 학인 모집

과 목	강 의 시 간	강의일자 변경
법 화 경	1교시: 2시 - 3시 10분 (매주 월요일 오후)	법회일인 경우 화요일
화 엄 경	2교시: 3시 30분 - 4시 40분	

- ◆모집대상: 스님, 일반인 ◆통신생: E-mail 통신 가능
- ◆모집인원: 약간명 ◆학 기: 2학기
- ◆개강일시: 2008년 9월 22일 오후 2시
- ◆장 소: 서울 중랑구 망우 3동 120-7(면목역, 상봉역)
- ◆전 화: 02)496-3952~3



필요한 분에게
여래선, 금강경,
대승기신론
통신강의 가능

강사 마정스님
가야산 해인사 강역 전수
금강산 정안사 강역 전수

불교 전문강원 임제선학원